

우리의 몸=성령의 전!

-고린도전서 6:12~20-

품어주시는 사랑.

따뜻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요.

바울은 일생애 3번의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2
번째 전도여행 중에는 고린도교회를 세웠습니다.
시간이 흐르고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
식이 바울에게 들려왔고,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생
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. 그것이
고린도 전 · 후서입니다.

사탄의 눈에 띄지 않게 저를 아버지 품에 감춰주세요.

고린도는 당시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. 이
는 고린도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런
상황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
첫째, 주님의 것이며
둘째, 예수님의 몸의 지체(부분)이며
셋째,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.
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
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

QnA

1.고린도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?

2.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
것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.